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미얀마 해양플랜트 수주

한국조선해양이 포스코인터내셔널사로부터 총 4억5천만달러 규모의 미얀마 해양플랜트 수주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포스코인터내셔널사로부터 미얀마 Shwe 가스전 3단계 사업을 수주했으며 한국조선해양은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 등 모든 공정을 일괄도급방식(EPCIC)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Evalend Shipping returns to Hyundai Mipo for LPG carrier newbuildings

TradeWinds에 따르면, 최근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40,000CBM급 LPG선 2척에 대한 발주처는 그리스의 Evalend Shipping이라고 보도됨. Evalend Shipping은 가스 운송부분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짐. 2척의 인도기한은 2022~2023년까지라고 알려짐. (TradeWinds)

한국, 11월도 수주 1위

Clarksons에 따르면, 한국이 11월 한 달간 전세계 선박 발주량 164만CGT 중 60% 이상을 수주하며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고 보도됨. 11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64만CGT(56척)를 기록했으며 국가별 수주량은 한국은 99만CGT(24척, 60%), 중국 60만CGT(24척, 37%), 베트남 5만CGT(8척, 3%) 순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Sinokor moves to scrap LNG duo in rare demolition sale

LNG선의 폐선이 희귀한 상황에서 장금상선(Sinokor Merchant Marine)이 2척의 LNG선에 대해 폐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135,293CBM급 1척(1981년 건조)과 133,000CBM급 1척(1984년 건조)이며 그중 한 척은 1dt당 451달러의 scrap 가격으로 책정됐다고 보도됨. (TradeWinds)

일본, 암모니아 연료 개발 박차

일본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0년대 후반부터 선박 연료 및 화력 발전용 연료 믹스에 암모니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일본은 2021년에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암모니아의 20%를 태우는 실험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Yara, 녹색 암모니아 생산 계획

노르웨이 비료 생산업체이며 선주이기도 한 Yara International이 연간 50만톤의 녹색 암모니아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힘. 2026년부터 가동을 계획중인 암모니아 공장은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연료 생산이 목표라고 보도됨. Yara는 향후 20년 동안 암모니아 시장이 +60%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힘. (선박뉴스)